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돼지 질병 발생 동향



김 봉 환
(경북대 수의학과 교수)

돼지 질병의 발생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는 통계자료가 없어서 돼지 질병 발생 동향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한 두마리를 키우는 농가의 돼지는 돼지 콜레라 같은 돌립병을 빼놓고는 좀처럼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한 두번 투약하다가 차도가 없으면 자가도살하여 이웃끼리 나누어 처분해 버리기 때문에, 질병 발생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와 같이 한 두마리를 키우는 「우리 집에도 돼지 있다」식의 양돈인 경우는, 돼지 자체가 서로 격리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비교적 쉽게 돼지의 질병관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묘사와 같이 단지양돈이나 전업양돈이 크게 발전하고 보니 자연히 좁은 공간이 많은 돼지가 밀집하게 되어 질병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고, 한번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면 단시일내에

여러 마리의 돼지가 병에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일단 병원체가 침입한 농장에서는 계속하여 병이 발생하게 되므로, 질병관리가 자연히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커지므로 돼지의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돼지 질병 문제가 양돈경영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니, 돼지 위생에 대한 양돈인들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전업양돈 또는 기업양돈의 경우는 피해가 큰 질병이나 농장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가검물이 가축위생연구소나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대학병원 등에 의뢰되어 병성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돼지질병의 발생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축위생연구소에 병성감정 의뢰된 돼지 가검물의 병성감정 결과와 대학의 연

“
 우리나라의 돼지 질병은 바이러스성이 42%로 가장 높고 세균성 41.2%,
 영양성 6.0%, 중독성 3.3%, 기생충성 0.8%, 기타 원인이 6.8%였다.
 ”

구자료 및 농수산통계연보 등을 참고로 하여 최근 5년간의 돼지 질병 발생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림 1은 지난 5년간(1981-1985) 총 901건의 돼지 가검물의 병성감정 결과, 병명이 판정된 돼지 질병을 원인별로 크게 나누어 본 성적이다.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바이러스성 돼지 질병이 378건으로 전체 병성감정건수의 42.0%나 되어 가장 높은 발생율을 나타내었으며, 세균성 돼지 질병의 발생도 총 901건 중 371건으로 41.2%나 되었다. 이와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돼지의 전염성 질병이 전체 질병 발생건수의 83.2%나 되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돼지질병은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양성 질병은 총 901건중 64건으로 6.0%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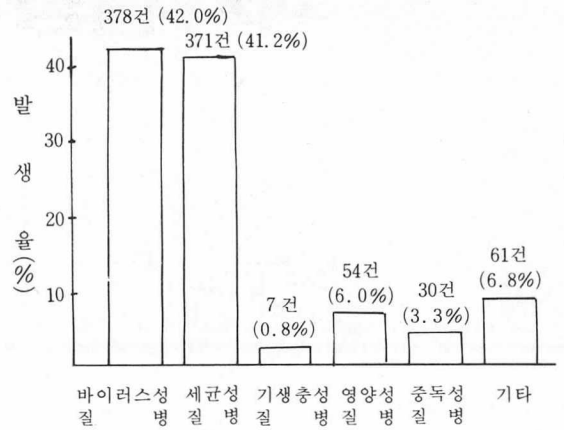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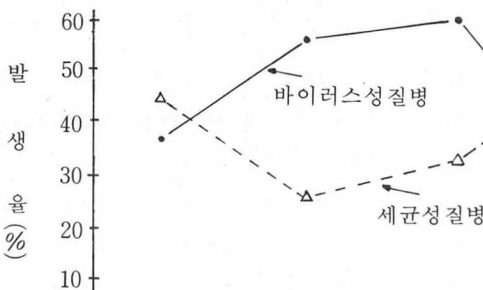


그림 1. 병성별 돼지 질병의 발생 동향(1981-1985)

으며, 중독성 질병은 30건으로 3.3%였다. 기생충성 질병은 전체의 0.8%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병명이 확실하지 밝혀지지 않은 것과 기타의 질병이 전체의 6.8%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돼지 질병



| 연도별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계 |
|--------------|----------|-----------|-----------|-----------|----------|-----------|
| 총 병성 감정 건수 | 132 | 187 | 239 | 185 | 158 | 901 |
| 바이러스성 질병 (%) | 49(37.1) | 104(55.6) | 142(59.4) | 44(23.8) | 39(24.7) | 378(42.0) |
| 세균성 질병 (%) | 58(43.9) | 51(27.3) | 80(33.5) | 100(54.1) | 82(51.9) | 371(41.2) |

그림 2. 최근 5년간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돼지 질병 발생 동향

의 대부분을 차지한 세균성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의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그림 2에 있는 바와 같다.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세균성 질병의 발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감이 있는 반면, 바이러스성 질병은 1983년을 고비로 해서 크게 줄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확인된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은 돼지 콜레라를 위시하여 전염성위장염, 돼지 일본뇌염,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등이며 최근에 와서 돼지 인플루엔자와 바이러스성 설사(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자돈 설사병) 등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바이러스성 질병은 원인요법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방역으로 병의 발생을 차단하는 수 밖에 별다른 길이 없으므로, 바이러스성 질병의 방역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안다.

세균성 질병의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 병의 발생은 기록이 심한 감이 없지 않으며, 바이러스성 질병의 발생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성 질병의 발생이 많으면 세균성 질병의 발생 또는 검색률이 줄어드는 반면에, 바이러스성 질병의 발생이 줄어들면 세균성 질병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세균성 돼지 질병중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살모넬라균증, 파스튜렐라 폐염, 대장균증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질병의 발생율은 각각 전체 질병 검색건수의 10.4%, 9.0%, 8.8%로서 전체 질병 발생건수의 28.2%나 되며, 세균성

질병의 68.5%를 차지하였다.(표 1 참조)

근년에 와서 큰 양돈장이나 양돈단지에서 문제시 되기 시작한 돼지 질병으로는 돼지의 위축성 비염, 마이코프라스마 폐염(유행성 폐염), 헤모필루스 흉막폐염, 돼지 적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흔히들 이러한 질병을 일컬어 “현대 양돈의 공적(公敵)”이라고 한다. 이러한 질병의 발생이 근년에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들 질병의 방제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이전에는 거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던 세균성 신장염과 장독혈증의 발생이 근년에 와서 상당히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돼지의 영양성 질병과 중독성 질병의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영양성 질병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독성 질병의 발생은 감소하는 기미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들 질병의 발생은 전체 질병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정도이며, 연도별로는 기록이 심하기 때문에 발생 동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영양성 질병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바이타민 E-셀레니움 결핍증이며, 식이성 간괴사(Hepatitis dietetica), 상실 심장병(Mulberry heart disease), 황지방병(Yellow fat disease), 식이성 모세혈관증(Dietetic microangiopathy)의 형태로 진단이 되고 있다. Biotin 결핍증과 Zinc 결핍증도 종종 문제되고 있는 영양성 질



최근 문제시 되기 시작한 위축성 비염, 유행성폐염, 헤모필루스 흉막 폐염, 돼지 적리 등은 피해가 막심해 「현대 양돈의 公敵」이라고 불린다.



병의 하나이다.

중독성 돼지 질병중 가장 빈번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철분주사의 잘못으로 인한 철분중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발생이 크게 감소되었다.

근래에 와서 문제되기 시작한 것으로는 사료내의 곰팡이 독소에 기인한 곰팡이 중독증(My-cototoxicosis)을 들 수 있으며, 점차 문제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료위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5년간에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었던 중요한 돼지 질병을 요약하여 보면, 표 1에 있는

바와 같다.

표 1에 있는 바와 같이, 돼지 콜레라가 계속 문제되고 있으며, 발생빈도도 전체 질병 발생 건수의 26.0%나 되어 가장 문제시 되는 돼지 질병으로서의 위치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20~30년간 계속 돼지 콜레라가 만연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돼지 콜레라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돼지 콜레라가 없는 양돈을 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고 과학적인 방역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하겠다.

표 1에 나타난 돼지 질병은 현재에도 계속 발

표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돼지 질병(1981-1985)

| 병 명 | 발생건수(%) | 비 고 |
|----------------|-----------|---------------------------|
| 돼 지 콜 레 라 | 234(26.0) | 연중 발생, 포유자돈에도 발생 |
| 전 염 성 위 장 염* | 31(3.4) | 5년간 계속 발생, 여름철에도 발생 |
| 일본뇌염등 유사산* | 27(3.0) | 백신 미접종 모돈에서 발생 |
| 바 이 러 스 성 장 염* | 19(2.1) | 최근에 발생이 확인됨.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 14(1.6) | 초산돈에 다발, 전국적으로 만연 |
| 돼 지 인 푸 루 엔 자 | 14(1.6) | 최근에 발생이 확인됨 |
| 살 모 넬 라 균 증* | 94(10.4) | 이유자돈에 다발,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음. |
| 파 스투 헬 라 페 염* | 81(9.0) | 육성돈에 피해가 큼. 전국적으로 발생 |
| 대 장 균 설 사 병* | 79(8.8) | 연중 전국적으로 발생, 실제 피해는 아주 많음 |
| 세 균 성 신 장 염 | 23(2.6) | 최근에 와서 발생빈도가 커짐 |
| 돼 지 적 리 | 19(2.1) | 발생이 증가 추세 |
| 흉 막 폐 염 | 14(1.6) | 전국적으로 발생 |
| 마이코플라즈마 폐염* | 10(1.1) | 전국적으로 발생, 감염율 50% 이상 |
| 부 종 병 | 8(0.9) | 이유자돈에 다발 |
| 돼 지 단 독 | 8(0.9) | 백신 미접종 돈군의 비육돈에 발생 |
| 삼 출 성 표 피 염 | 7(0.8) | 포유자돈에 다발 |
| 위 축 성 비 염* | 5(0.6) | 전국적으로 만연, 감염율 50% 이상 |
| 장 독 혈 증 | 5(0.6) | 포유자돈에 문제시 됨 |
| Vite-Se결 핏 증 | 26(2.9) | 근년에 와서 문제시 됨. 증가 추세 |
| 저 혈 당 증 | 15(1.7) | MMA등과 연관이 있음 |
| 약 물 중 독 | 25(2.8) | 철분중독, 농약 중독 등 |
| 곰 팡 이 중 독 | 5(0.6) | 근년에 와서 문제시 됨· 증가추세 |

* ; 필자가 선정한 10대 주요 돼지 질병

● 우리나라의 10대 돼지 전염병

- 돼지콜레라
- 바이러스성 장염
- 대장균 설사증
- 위축성 비염
- 전염성 위장염
- 살모넬라균증
- 흉막폐염
- 일본 뇌염 등 유사산증
- 파스튜렐라 폐염
- 마이코프라스마 폐염

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병들의 역학적 특성을 좀더 잘 파악하고 예방 및 치료는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양돈을 하기 위한 큰 발돋움을 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깨달아야 하겠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웃 일본이나 대만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돼지의 가상광견병(Pseudorabies)의 발생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병도 언제, 어디로 우리나라에 침입해 올 지 알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근년에 와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를 좀 키워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돼지 병때문에 양돈하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돼지 질병을 분석하여 보면, 전염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며 피해가 큰 10대 돼지 전염병으로 돼지 콜레라, 전염성 위장염, 일본뇌염 등 유사산증, 바이러스성 장염, 살모넬라균증, 파스튜렐라 폐염, 대장균 설사병, 흉막폐염, 마이코프라스마 폐염, 위축성 비염을 들고 있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전염병의 발생이 많다는 것은 돼지의 위생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전염병이 수년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전염병의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돼지의 전염병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



에다 새로운 전염병이 하나 둘 불어나고 있어 우리 양돈인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근년에 와서 영양성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료의 변패 또는 사료내의 미생물에 의한 돼지 질병의 발생도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어 사료위생 문제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같은 여건을 극복하고 건전한 양돈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양돈인 스스로가 돼지 위생문제에 대해서 배전의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병방제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전염병의 방역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생산자, 수의사, 정부당국,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발생하는 돼지 질병의 정확한 파악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돼지 질병의 병성감정을 신속·정확히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

급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이나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함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정확한 병인 규명과 이 병을 방역하는데 있어 생산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개업 수의사들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성 소모성 질병(위축성 비염, 마이코프라즈마 폐염, 돼지 적리 등)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이 병의 박멸사업을 외국에서 처럼 생산자 단체가「돼지위생계획(Pig Health Scheme)」같은 것을 성안

하여 주도해 나가야 할 줄로 믿는다.

현재와 같이 돼지 콜레라와 전염성 위장염과 같은 전염병이 한 곳에서 발생하면 점차로 전국을 누비는 식이 되지 않도록 병의 발생을 은폐하지 않고 노출시켜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해서 병의 전파를 차단함은 물론,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전염병의 발생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어야만 우리나라의 양돈업이 건전한 풍토위에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

正藥院은 약만을 팔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축의 질병을 압니다.

우리는 약을 압니다.

우리는 사양관리를 압니다.

- 정약원은 거래처에 빠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20메가바이트의 대용량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국내의 유명약품 도소매
- 가축약품 판매업소 개별상담
- 농장개설에 따른 설비
농자축구입 방역계획상담

正藥院
동물약품 正藥院
TEL. 32-1250
경기도수원시매교동 25-7